

지역 소식통

정읍시, 방역 특별점검

정읍시가 오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7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연휴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스템이 다소 느슨해지고, 고향을 찾는 타 지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오락실, 영화관, 종교시설 등 총 489개소로, 31개조를 편성 132명이 인력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중점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 수기명부 개인정보 유출금지) ▲시설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 이상 유무 확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소독·청소·환기 ▲손소독제 곳곳에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이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원)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쌍화차거리 · 새암길 주변 정읍시, 업소 간판 바꾼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원도심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하며 쌍화차거리와 새암길 주변 업소 간판 교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국가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5백만 원 포함 총 4억 3천만 원을 들여 쌍화차거리와 새암길 주변도로(시청~중앙로) 약 150여 개 간판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난립되어 도시미관과 거리경관을 저해하는 상가 간판을 업소별 특성에 맞춰 제작해 교체한다는 취지다. 업소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간판의 서체와 색채에 담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간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추석 명절 민생안정 중점”

정읍시, 재난재해 · 물가 · 교통 · 의료 · 방역 대책 마련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귀성객 등 불편 최소화 올인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추석 맞춤형으로 보완·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총괄지원반을 비롯해 재난재해, 물가, 교통, 의료·방역,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선별 진료소와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해외입국자와 자가 격리자를 관리한다. 또한 서남권 추모

공원의 봉안당 동시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방문객 소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음식점 등 고위험·중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재난재해대책반’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태세를 구축한다.

‘물가대책상황반’은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기, 부당거래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통대책반’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읍역, 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특별 배치하며, 연휴 기간 중 주차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2개소(수성동, 시기동)의 유료 공영주차장 186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의료·방역대책반’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이외에도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과 함께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연휴 기간 중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시정 당직실과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환경대책반’은 연휴 기간 중 가동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주요 노선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폐기물 수거 관련 긴급 민원에 신속 대응한다.

‘상하수도대책반’은 하수도 시설물 전반을 점검하고, 상하수도 관련 민원과 긴급수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과 한창술 서부지청장 등이 23일 정읍시청을 방문, 지역 임업 발전과 산불방지에 힘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종호 산림청장, 지자체와 소통 강화

정읍 방문... 유진섭 시장, 칠보산에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건의

박종호 산림청장과 한창술 서부지청장 등이 23일 정읍시청을 방문했다. 정읍시는 산림청장이 지역 임업 발전과 산불방지에 힘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읍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현황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현안업무를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산불상 황실에 방문해 무인 감시카메라와 무인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가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설명 듣고 운영사항 등을 점검했다.

유진섭 시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에게 정읍하브원과 인접한 칠보산 산림청 소유 국유림 73ha 면적에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향기와 경관 등을 활용에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의 숲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청정 한 자연환경의 강점을 가진 만큼 안전 관광과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강조했다.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행 시 정읍하브원과 연계한 휴식과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향기공화국 정읍’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산림청장의 지자체 방문은 흔치 않은 일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다”며 “건의한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정읍시에 새로운 산림휴식공간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문화유산 접목한 여행 프로그램 ‘화제’

주민공정여행사 팜팜 김수남 대표 스토리 공모전 대상 영예

고창군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목한 여행프로그램이 최근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주민공정여행사 팜팜의 김수남 대표가 '2020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재단 주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관련 해설 전문가 분야의 해설스토리 부문과 여행업 분야의 여행스토리 부문으로 진행됐다.

김수남 대표는 ‘소리꾼과 함께하는 고창 시간여행, 일우고고(gogo) 테마로 고창음성, 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등 고창군의 주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여행스토리를 썼다. 전문 소리꾼이 가이드를 하면서 타

관광상품과의 차별화를 두고 자칫 무겁거나 건조할 수 있는 ‘문화유산’ 여행을 흥겹고 즐겁게 풀어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기고,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창음성 앞에서 여행자가페(모로가게)를 운영하는 김수남 대표는 ‘신중년과 함께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솔바람 데이트소리 고창음성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본격 착공했다.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첫 삽’

부안군은 부안을 주요 도심지역의 불법 주차차를 막고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이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옛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부지에 신축되는 공영주차타워는 2019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등 4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계획승인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차대수 9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추진되며 지난 21일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부안상설시장 주변은 시장과 주변상가 등이 산재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으며 이번 공영주차타워가 준공되면 불법 주차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불법 주차차를 근절해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에 걸맞는 매력부안

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운전자들의 주차불편과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농악 ‘꽃대립 축제’ 집에서 즐긴다

내달 1~3일 유튜브로 개최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사)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는 오는 추석 연휴 기간(10월 1일~3일) 동안 고창농악 ‘꽃대립 축제’를 언택트 공연예술 축제로 고창농악 유튜브에서 개최한다.

꽃대립굿은 고창을 중심으로한 영무장권에서는 벼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칠월 칠석쯤 서로의 노고를 다독이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남녀노소 즐기며 음식을 장만해 나누는 잔치로 8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어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고창농악 ‘꽃대립 축제’를 언택트 전통 공연예술 축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체 프로그램은 3개의 메인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진행된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Green 감성농악 ‘운곡로맨스 ; 생명의 날개’가 방송된다.

각 날짜별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 추석 전날인 10월 1일에는 사라진 복을 다시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전통연희예술단 고평의 창작연희공연 ‘똥대! 복(福)고풍’과 2018년도 한옥 자원 활용 아간상설공연 판타지 감성농악 ‘이팝 : 신의 꽃’이 추석 당일인 2일에는 호남최대 농악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남원농악과 호남 우도농악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7-6호 고창농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팔도농악교류전 ‘호남 좌·우도 농악’과 2019년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가 방송된다.

추석의 마지막인 3일에는 전라도 설장구 명인인 김동원, 황치용, 진준환, 구재연의 설장구 공연과 ‘전라도의 장구 명인들’에 대해 조미연 박사의 강의가 진행되는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전라도의 장구’, 2020한옥 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Green 감성농악 ‘운곡로맨스 ; 생명의 날개’가 방송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